

2016 <나마스떼겐지스, 네팔>현지방문 모니터링 보고서

[2016 아름다운가게나마스떼겐지스 프로젝트]

네팔 취약 계층의 자립지원을 위해 농촌 지역의 빈곤을 해결하고,
식량 자급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영세농과 마을기업 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는Oxfam네팔과 진행하고 있는 네팔 농촌지역취약 계층 지원프로젝트의 모니터링을 위해 2017년 1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2016년 11월 ~2017년 4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 사업 지역:수르켓(Surkhet),다델두라(Dadeldhura), 나왈파라시(Nawalparasi) 3개 지역
- 사업 목적 :네팔취약계층 자립 지원
- 핵심내용 : 마을기업 지원사업 (EDP : Enterprise Development Program)
- 참여 주체 : 마을 조합원 1,000명(여성 634명, 63.4% / 남 366명, 36.6%)



사진>파비트라 협동조합 여성조합원

1. 사업 내용 :

4가지 핵심 사업			
1. 씨앗 생산방식 변화	2. 씨앗판매 마케팅 활성화	3. 농부들을 위한 저축 및 신용사업	4. 여성 참여 확대
수혜자들이 이야기하는 변화의 목소리			
			
네팔 농업연구소에서 좋은 씨앗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합니다. 이를 협동조합에서 가져와 종자를 생산하면 지역 농부들이 대량으로 재배 및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씨앗 생산방식의 변화로 수익이 40% 향상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몰라서 큰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했지만 지금은 작은 단위의 포장을 만들어서 시장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통 1 kg에 200루피를 받는데 패키징을 잘하면 1kg에 600루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저축 신용 협동조합을 통해 쿠마리(Kumari)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씨앗을 가져오면 씨앗으로 기금을 갖고 남은 돈은 농부에게 주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남편 돈으로 생활하면서 남편에 대한 의존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관리도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은 해외에서 돈을 벌고 저도 집에서 돈을 벌어요. 남편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기뻐하세요.

2. 사업의 효과

이번 프로젝트의 초점은 지역 농부들의 자립능력 향상에 있었습니다. 개인보다는 지역 커뮤니티의 강화를 통해 공동의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파비트라종자회사(Pavitra Seed Enterprise) 매니저 고락 나트 아카랴(Mr. GorakhNathAcharya)와 조합의장 나울싱카트리(Mr. NaulsinghKhatri)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정의 변화

“마을 남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멀리 인도로 이주노동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합을 통해 돈을 벌고 스스로 관리도 하면서 마을에서 번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씨앗 생산이 잘 되면서, 남편도 이주노동에서 돌아와 가족이 함께 농사짓는 것이 가능해지지요.”

마을의 변화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을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물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조합 대출을 통해 관개시설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마을의 역량이 더 커진 것이죠.”

사업능력의 향상

“우리가 생산하는 파비트라 씨앗(Pavitra Seed)이 2015년 종자품질관리센터(Seed Quality Control Center)에서 씨앗 인증을 받았습니다. 씨앗의 품질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합원 농부의 수, 기술적인 부분 등 모든 기준을 충족했지요. 인증을 받은 후 ‘Pavitra Seed’ 상표로 프린트된 포장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네팔에서 생산되는 작물 중 30% 정도만이 네팔에서 생산된 씨앗으로 재배된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생산된 씨앗에 대한 믿음이 작다네요. 네팔에서 생산된 씨앗을 현재 30%에서 100%로 늘리고 싶습니다.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익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진>조합의장 Mr. NaulsinghKhatri

3. 마을기업 지원사업 :‘파비트라 협동조합’에서 ‘파비트라 종자회사’로

‘파비트라 협동조합’은 2,000년에 시작했습니다. 조합은 옥수수, 레이디 핑거, 무, 양파 등의 씨앗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람들이 조합에 대해 몰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생산성이 높아졌고

네팔 전체에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서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패키징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비트라(Pavitra)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는데, 파비트라 종자회사(Pavitra Seed Enterprise)로 성장하고 싶어요. 현재 파비트라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씨앗의 품질이 좋아서 정부에서도 생산량을 늘리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비트라 종자회사(Pavitra Seed Enterprise) 매니저 고락 닷 아카라(Mr. GorakhNathAcharya)

○ 마을기업지원사업(EDP) 전 후 비교

S.N.	구분	EDP 시작 전 (2010)	현재
1	조합원 수	216 명	1,000 명
2	활동지역 수	3 VDC	5 VDC
3	서비스가 지원된 지역	0	8 VDC
4	씨앗 생산 그룹	17 그룹	72 그룹
5	씨앗 생산 농부	216 명	1,340 명
6	직원 수	2 명	11 명 (남 3 명, 여 8 명)
7	기관 건물	1 채	2 채 (10 개 공간)
8	저축액	0	1,533,031 루피
9	투자 자금 상황	0	4,612,637 루피
10	자본금	21,600 루피	841,800 루피
11	생산량	1.5 톤	85 톤
12	비즈니스 수익	0	696,297 루피

출처: Pavitra Seed Enterprise 제공자료

4. 조합원 미팅

1) 질의 응답

Q. Seed 생산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A.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NARC (Nepal Agricultural Research Council)가 씨앗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두 번째로 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와서 씨앗을 생산하고, 세 번째로 씨앗을 사간 농부들이 재배하여 판매하면 네 번째로 농부들이 판매하는 우리가 소비하는 농산물이 되는 것임

Q.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A. 예전에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어 가뭄으로 생산량이 떨어져서 힘들었다.

내부적 요인은 다른 지역의 조합원과 합쳐지면서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Q. 여성 농민이 몇 %를 차지하는지? 여성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A.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조합으로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여성들에게 왜 조합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줬다. 여성이 농사를 짓고 남편이 그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성이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처음에는 여성이 조합 안에 들어오길 거부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여성 조합 가입률이 높아졌다. 대출자도 63%가 여성 조합원이다.



파비트라 협동조합 건물



협동조합 건물 1층: 농업용품 가게



2층 협동조합 사무실에 모인 조합원들



자기소개를 하는 조합원

(2) 씨앗 생산공장 방문

- 포장개선을 통해 1kg에 200루피 팔리던 씨앗을 650루피로 판매 가능해짐
 - 포장 가격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
- 1개에 20g의 씨앗이 들어있는 상품 → 1,000개 생산 / 하루
- 농부가 생산하여 수확한 씨앗을 kg을 측정해 받은 후 씨앗 포장을 진행함
- 생산공장 내부의 씨앗 보관통은 정부가 지원함
- 탈곡기계 이용이 가능하고, 다른 농업 관련 기계를 조합을 통해 구입 가능함
 - 50%는 조합이 지원하고, 50%는 농부 조합원이 지불
 - 작년 7월부터 2백만 루피를 판매함

- 5,000 루피→ 100,000 루피/월
- 포장 이후 수익이 40% 향상됨
- 수익은 조합의 발전 기금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등에 사용됨



씨앗 생산 공장 외관



씨앗 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



보관 중인 씨앗들



농사짓고 있는 여성조합원들1



농사짓고 있는 여성조합원들2

(3) 이해관계자 인터뷰

1) 조합 의장(Mr. NaulsinghKhatri)

1.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
→ 초반에는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지금은 시장접근성을 고민하고 있음
2. 조합이 생긴지 15년 정도 지났고 2003년부터 조합 대표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 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 처음 시작할 때는 조합이 매우 열악했다. 농부들의 가입률을 높이는 것도 힘든 경험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3. 조합이 시작된 이후 옥스팜의 지원으로 Pavitra Seed Enterprise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었나?
→ 처음에는 협동조합을 시작했지만 운영방법을 몰랐다. 옥스팜을 만나서 여러 교육들을 받을 수 있었고, 쿠마리은행(Kumari bank)도 연결해줘 대출이 가능해졌다.
마을에 방문해 협동조합 운영의 좋은 점과 농사법, 이윤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줘서 좋았다. 어떤 일을 하면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지도 이야기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다.
→ 도매상과 연결을 해주기도 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연결해주고 District office와 같은 정부기관, FNCCI 등 여러 기관의 지원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4. 얼마나 커뮤니티에 거주했고, 리더가 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 이 마을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마을에 사는 평범한 농민으로 있다가 마을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도 배우고, 협동조합에도 들어오게 됐다. 나도 농부이기 때문에 씨앗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

5. 아름다운가게와옥스팜 지원의 종료를 고려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 3년간 마케팅을 지원해주면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씨앗 판매에 대한 마케팅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옥스팜의 지원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현재는 씨앗의 패키징을 바꿔 판매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앞으로의 기대
→ 현재 네팔에서 생산되는 씨앗은 30% 밖에 되지 않는다. 70%는 수입한 씨앗을 사용하고 있다. 네팔에서 생산된 씨앗의 30%에서 100%로 늘리고 싶다. 농부들의 삶을 개선하고 수익을 늘리고 싶다.

네팔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된다.

2) 회계 담당자 (Mr. YamlalKhatri)

1. 재정관리 시스템은?
→ 저축 신용 협동조합을 통해 Kumari 은행에서 대출 받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에서 씨앗을 가져오면 씨앗으로 기금을 갚고 남은 돈은 농부에게 주고 있다.
2. 조합에서 돈을 벌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 수익금은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된다. 조합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전 부분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조합원에게 배당을 한다.
3. 보너스를 주는 기준은?
→ 주식처럼 투자한 만큼 받는다.
4. 재정운영에서 외부지원금(아름다운가게와옥스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
→ 5년간 1억500루피 지원 (1년 3,000,000루피 정도)
외부 지원은 첫 번째는 loan company(USD 4,000 남아있음), 두 번째는 Business grant로 Pavitra Seed Enterprise의 인건비 75%를 지원해주고 있다.
5. 1년간 조합의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 올해는 100만 루피 아래로 약 60 - 70만 루피의 매출액이 나왔다.
6. 수익 중 미래적립펀드로 적립하는 비율은?
→ 수익 중 40%를 미래를 위해 적립하고 있다.



인터뷰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대표 Naulsingh씨와 매니저 Gorkh씨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회계 담당자 Yamlal 씨

3) 마을 여성들 인터뷰

① 서리파로카



“전체 조합원은 34명이고, 이중에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달리트 계급은 17명 있습니다. 계절마다 씨앗이 다른데 우 기에는 콩, 여주, 레이디스핑거를 생산하고 지금은 완두콩, 무를 생산하고 있어요. 1달에 50루피를 저금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 전에는 1년에 1번 자급자족을 위한 농사를 지었었는데, 씨앗을 생산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고 이 돈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Q. 조합원이 된 계기는?

A. 예전 방식으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었는데, 조합에서 스텝들이 돌아다니면서 씨앗농사를 지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가입절차와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수익을 받을 때 차별은 없나요?

A. 특별히 조합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가 있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지만 기계구 입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여성이라고 차별을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② 켈빠나 울리 (여, 30세)

Q. 여성 캠페인, 교육 참여 경험이 있나요?

A. 조합에서 특별히 여성 캠페인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조합에 남성이 4명밖에 없어서 따로 여성을 위한 캠페인은 없어요. 교육은 농사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Q. 활동은 얼마나 하셨나요?

A. 5년 정도 됐습니다.

Q. 활동하기 전후의 변화

A.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남편 돈으로 생활하면서 남편에 대한 의존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관리도 제가 직접 할 수 있어서 좋아요.

Q. 활동하기 전후의 변화

A. 남편은 해외에서 돈을 벌고 나는 집에서 돈을 벌고 생활합니다. 남편도 좋아하고 시어머니도 기뻐하세요.

조합원 “2002년에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관개시설 설치를 위해 VDC 펀드나 농업개발펀드와 같은 정부펀드를 받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대출의 필요성과 갚을 수 있는 여건 등에 대해 고민하다가 Pavitra 조합을 통해 Kumari 은행에서 140만 루피를 대출받았습니다. 1루파니(소2, 사람4명이 일하는 규모) 땅에 13,000 루피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받은 돈으로 관개시설을 완성했고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FGI (Focus Group Interview) 에 참여한 여성조합원

☆ 이 모니터링 보고서는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17년 4월 이후 최종안을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 ‘나마스떼갠지스’ 프로젝트를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기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다 효과적인 사업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마스떼갠지스 프로젝트 후원하기]

<https://give.beautifulstore.org/default.aspx?action=join&supporttype=1180>